

# ‘도시의 소리풍경’ 예술로 담아낸다

## ACC 입주작가 레지던시 본격 가동

4개국 전문가 9명 입주 완료  
‘듣기의 미래’ 주제 창작활동  
11월에 프로그램 결과물 공개

도시의 소리풍경을 연구하고 창작품으로 만들어 낼 2023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레지던시 프로그램 ‘듣기의 미래’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됐다.

31일 ACC에 따르면 올해 ACC 입주작가 창작 지원 프로그램(레지던시)에 참여한 연구자와 창·제작자 등 참여자 9명이 최근 모든 입주 준비를 마치고 지난 5월부터 작품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ACC는 올해 입주 작가 지원 프로그램에 응모한 46개국 출신 340명 가운데 4개국 9명(개인 7명, 팀 2명)을 참여자로 확정, 선발했다. 이들은 기술연구, 시각미술, 연구기획, 소리예술(Sound art), 매체예술(미디어아트), 다원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전문가다.

이들은 ‘듣기의 미래’를 주제로 그동안 서구적으로 정의된 ‘듣기’의 아시아적 의미를 되짚어보고 아시아 도시에서 떠오르는 의제들을 소리풍경(Soundscape)으로 해석, 6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창작품으로 만들어 내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ACC는 ACC소리예술연구소(ACC Sound Art Lab)와 협업해 세계 유수의 소리풍경 전문가로 구성된 창작지원 프로그램을 참여자에

게 4차례 제공한다.

첫 프로그램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애버딘 대학의 교수들이 진행하는 ‘도시와 소리풍경’이다. 참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ACC 창·제작 기반시설과 전문 인력의 자문 등을 받아 개별 연구 과제를 고도화해 나갈 수 있다.

프로그램 결과물은 오는 11월10일부터 개최되는 결과발표전시에서 공개된다. 각 프로젝트와 연계한 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관람객에게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ACC는 참여자의 광주 현지 생활과 교류활동을 돕기 위한 다양한 생활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ACC와 전일빌딩 등 광주정신의 현장을 방문하는 탐방(리서치 투어)과 환영만찬(웰컴파티)을 진행했다. 광주와 한국

의 창·제작자와 함께 교류하는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ACC는 기존 문화예술 형식을 탈피해 장르와 분야를 확장한 새로운 결과물을 창작자가 만들어 내도록 시설과 인력을 뒷받침하는 레지던시 창작 지원 프로그램을 지난 2016년부터 진행했다. 매년 공동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변주를 융·복합 결과물로 선보인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올해 ACC 입주작가 창작지원 프로그램은 특히 소리풍경 장르의 실험적인 주제를 화두로 던졌다”며 “다양한 배경의 역량 높은 참여자들이 의미 있는 창·제작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 제5회 전국 한시 지상백일장 장원 조남호·차상 이형민 선정

제5회 전국 한시 지상백일장에서 서울 조남호씨가 장원의 영예를 안았다.

(사)서석한시협회는 오월정신의 함양과 구도청야 광주민주광장을 기리기 위해 ‘贊光州民主廣場(찬광주민주광장/광주민주광장을 기리다)’을 시제로 제5회 전국 한시 지상백일장을 개최, 지난 4월3일~5월10일까지 시고를 우편을 통해 접수받았다.

(사)서석한시협회가 주관하고 광주시청과 전남일보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백일장에는 전국에서 400여명의 한시동호인들이 참가했다. 심사 결과 장원에는 서울의 조남호씨, 차상에는 광주의 이형민씨가 각각 선정됐다. 또 차하, 참방, 가작 30명도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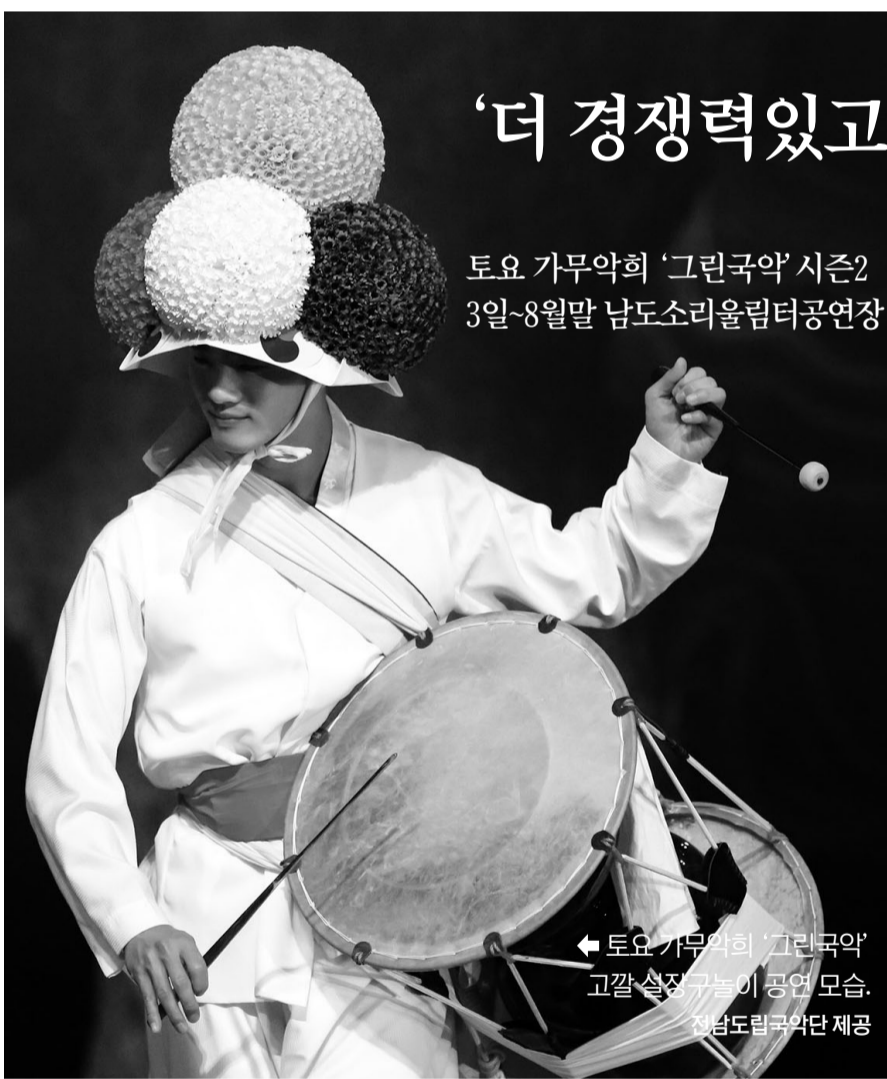
이번 입상된 한시 작품은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광주시 계림미술관에서 전시된다.

도선인 기자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 ‘더 경쟁력있고 흥미로운’ 그린국악 찾아온다

토요 가무악회 ‘그린국악’ 시즌2  
3일~8월말 남도소리올림터공연장



토요 가무악회 ‘그린국악’ 고깔·솔장·구슬이 공연 모습. 전남도립국악단 제공

전남도립국악단이 더 경쟁력있고 흥미로운 작품들로 토요 가무악회 ‘그린국악’ 시즌2에 돌입한다.

보다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국악으로 21세기 감수성을 담아낸 ‘그린국악’은 시즌2를 맞아 한층 더 경쟁력 있는 작품들로 오는 3일부터 8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무안군 남도소리올림터 공연장에서 관객을 맞는다.

프로그램도 시즌1보다 흥미로워졌다. 영유아를 위한 전래 영아 놀이노래 ‘질라래비 훨훨’, ‘두꺼비보다 잘도 긴다’를 시작으로, 흐름수록 깊어지는 인생을 그린 국악 관현악 합창 ‘물 흐르는 내력’, 지휘자 없이 집박(執拍)과 연주자들의 자생적 호흡만으로 이뤄내는 ‘국악 관현악 산조합주’ 등 새로이 선보이는 작품들로 무대를 짙게 채운다.

특집공연들도 다수 마련됐다. 24일에

는 단옷날을 맞아 최근 KBS 인간극장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젊은 줄광대 ‘남창동’ 청년 명인을 초청해 화려한 줄타기 묘기를 선보인다.

7월29일에는 무용특집으로 2022년 정기공연 작품으로 첫 선을 보인 ‘초연: 산이 다한 곳, 구름 한 송이’를 다시 무대에 올린다.

특히 8월12일에는 지난해 전석 매진을 거듭하며 성황리에 공연한 국악으로 인문학하기 ‘당신이 답이다’ 시즌3를 개최하고, 유명 한국사 일타강사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 소장을 초청해 ‘나와 당신의 오늘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란 주제로 강연과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관람료는 1만원이며, 예매문의는 061-980-9955로 하면 된다.

도선인 기자

## 일본 오사카에서 펼쳐지는 남도 국악의 향연

### 국립남도국악원 해외공연 슬로건 ‘남도의 삶과 예술’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3일 일본 오사카에서 ‘한국의 문화유산, 남도의 삶과 예술’이라는 주제로 해외 국악공연을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2024년까지 이어지는 한국 방문의 해를 기념하고자 마련됐으며, 오사카한국문화원의 초청으로 쿨재팬파크 오사카(COOL JAPAN PARK OSAKA)의 WW홀에서 진행된다.

공연 프로그램은 국악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전남의 대표 작품들 위주로 구성됐



공연 프로그램 중 하나인 씻김굿 중 지전춤의 무대 모습.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강술래’와 ‘판소리’를 시작으로 진도를 대표하는 ‘진도씻김굿(남도삼현, 지전춤, 길

## 서도소리의 향연 ‘왔구나! 왔어! 3인의 배뱅이’ 진도 공연

### 3일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

국립국악원의 ‘왔구나! 왔어! 3인의 배뱅이’ 공연이 오는 3일 오후 3시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 무대에 오른다.

이번에 선보일 국립국악원 ‘왔구나! 왔어! 3인의 배뱅이’는 ‘서도 지역의 판소리’라고 할 정도로 극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배뱅이굿’을 새롭게 각색한 작품이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유지숙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3명의 여자 소리꾼이 이끌어지며 기악·연희 단원들이 함께 재구성했다.

‘배뱅이굿’은 고 이은관 명인에 의해 대

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판소리와 비슷하게 장구 반주에 1인 다역으로 혼자 소리를 끌어가는 작품이다.

공연은 무료이며, 공연 전후 진도 읍내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다.

또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을 위해 12월 까지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를 진행, 참여한 관람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https://jindo.gugak.go.kr) 또는 전화(061-540-4042, 장악과)로 문의하면 된다.

도선인 기자